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책잡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남의 잘못을 들어 나무라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책잡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남의 잘못을 들어 나무라다.

책잡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책잡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칙잡다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책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칙잡-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책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責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칙잡다

20세기미상

- 책잡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칙잡-, 책잡-, 責잡-

책잡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책잡다'는 19세기로 추정되는 문헌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칙잡다'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責잡다'도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칙잡다'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을 뜻하는 한자어 '責'을 한글로 표기한 '칙'과 실마리, 요점, 단점 따위를 찾아내거나 알아내다를 뜻하는 '잡다'이 결합한 것이다. '칙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칙잡히-'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ㆍㅣ'도 'ㅐ'로 변하면서 '칙'은 '책'이 되어 20세기에 '책잡다'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책잡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책잡-, 칙잡-, 責잡-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책잡-, 칙잡-, 責잡-

출처 1904 신학월보 4:217 용례 01

문헌 용례

한편 손 마른 이가 잇는대 뭇사람이 예수씌 물어 갈아대 안식일에 병 곳치는 거시 합당하니잇가 하니 이난 예수를 책잡어 송사하랴 함일너라.

현대어 풀이

한편 손이 마른(쪼글쪼글한) 사람이 있는데 뭇사람이 예수께 물어 말하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다까 하니 이는 예수를 책잡아 송상하려 함이었다.

출처 1910 보감 4:154 용례 02

문헌 용례

뎌를 뮈워ᄒᆞ는 쟈들도 감히 칙잡을 것을 맛나지 못ᄒᆞ야.

현대어 풀이

저를 미워하는 자들도 감히 책잡을 것을 찾지 못하였다.

출처 1922 동아일보 5월 12일 4면 용례 03

문헌 용례

라매신은 먼저 성뎐옥의 말을 칙잡엇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6 동아일보 1월14일 5면 용례 04

문헌 용례

이에 對하야 編輯者와 作家라는 이에게 當然히 疑問이 잇서야 할 곳에 엇지하야 疑問은 가지지 못하엿는가 하는 責任感은 責잡아 말하는 것보다도.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동아일보 8월 21일 3면

용례 05

문헌 용례

월숙이는 순점이가 우는 것을 보고 민망한 듯이 윤수를 책잡는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칙잡-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칙잡-

출처 미상 신약전서 13ㄱ

용례 06

문헌 용례

이ᄂᆞᆫ 예수ᄅᆞᆯ 칙잡어 숑ᄉᆞᄒᆞ랴 ᄒᆞᆷ일너라.

현대어 풀이

이는 예수를 책잡아 송사하려 함이었더라.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책잡다 관련 낱말

책잡히다

책잡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책잡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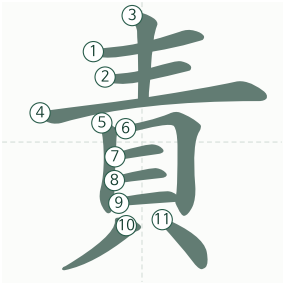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責

뜻·음 꾸짖을 책

총 11획 · 부수 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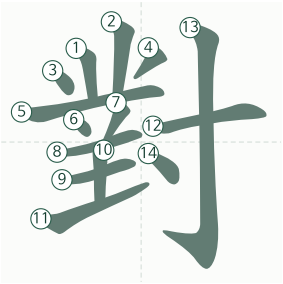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責/

對

뜻·음 대할 대

총 14획 · 부수 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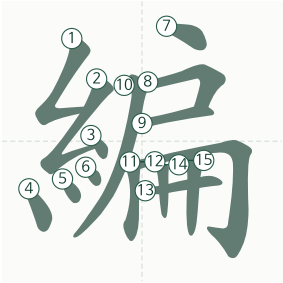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對/

編

뜻·음 엮을 편

총 15획 · 부수 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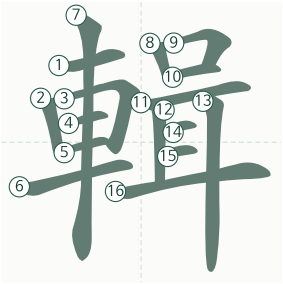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編/

輯

뜻·음 모을 집

총 16획 · 부수 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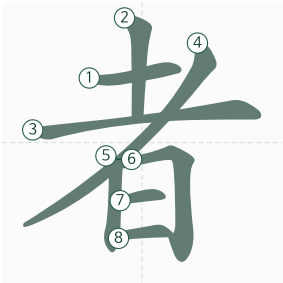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輯/

者

뜻·음 놈 자

총 9획 · 부수 老





사전 9획 · 획순 그림 8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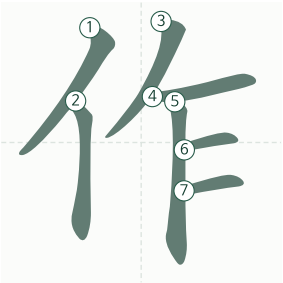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者/

作

뜻·음 지을 작

총 7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作/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2 / 3 · 14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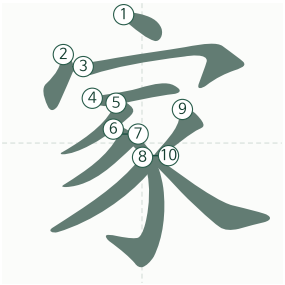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家

뜻·음 집 가

총 10획 · 부수 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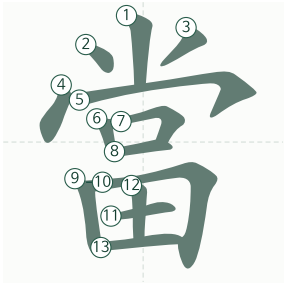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家/

當

뜻·음 마땅 당

총 13획 · 부수 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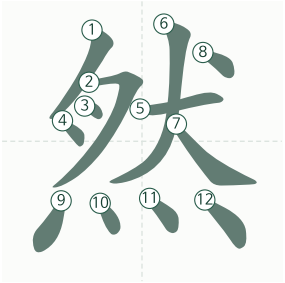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當/

然

뜻·음 그럴 연

총 12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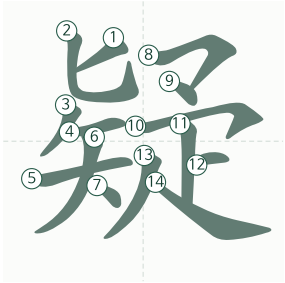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然/

疑

뜻·음 의심할 의

총 14획 · 부수 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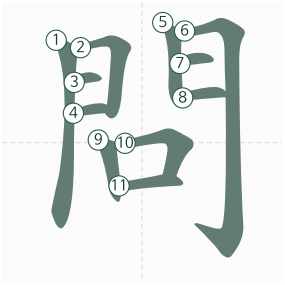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疑/

問

뜻·음 물을 문

총 11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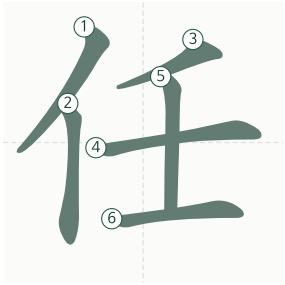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問/

任

뜻·음 맡길 임

총 6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任/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3 / 3 · 14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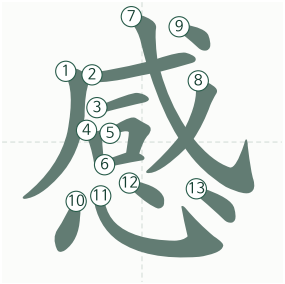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感

뜻·음 느낄 감

총 13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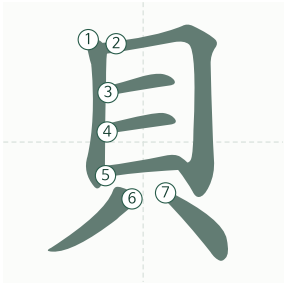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感/

貝

뜻·음 조개 패

총 7획 · 부수 貝





hanja.wordrow.kr/한자/貝/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